No. 10 위험 관리 읽는 시간 5분

신용융자(빚투)는 수익을 두 배로 키워 줄까?

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, 오르면 수익이 두 배지만 내리면 손실도 두 배 이상입니다. 가상의 숫자로 이자와 반대매매까지 계산해 봅니다.

한 줄 결론

빚투는 수익과 손실을 같은 배수로 키우고, 이자와 반대매매가 손실 쪽을 더 무겁게 만듦

확인할 숫자

융자 이율, 담보비율 기준, 반대매매 시점



사진: 도쿄 증권거래소 전광판, ehnmark, Flickr.

목차

1. 신용융자를 쓰면 수익은 왜 두 배가 될까?
2. 주가가 내리면 손실은 어디까지 커질까?
3. 이자는 수익을 얼마나 깎을까?
4. 반대매매는 언제 일어날까?
5. 주가가 다시 돌아와도 손실이 남는 이유는?
6. 빚투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>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

내 돈 1,000만 원으로 2,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솔깃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? 같은 주가 상승에도 수익이 두 배가 된다니 계산상으로는 매력적입니다.

그렇다면 빚을 내서 하는 투자, 이른바 빚투는 정말 수익을 두 배로 키워 줄까요? 가상의 숫자로 오를 때와 내릴 때를 모두 따라가 보겠습니다.

01

신용융자를 쓰면 수익은 왜 두 배가 될까?

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. 산 주식은 대개 담보로 잡힙니다.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.

가상의 투자자 A가 내 돈 1,000만 원에 빚 1,000만 원을 더해 2,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겠습니다. 주가가 10% 오르면 평가금액은 2,200만 원입니다. 빚 1,000만 원을 갚으면 내 몫은 1,200만 원이라 수익률은 20%입니다. 이자는 뒤에서 따로 계산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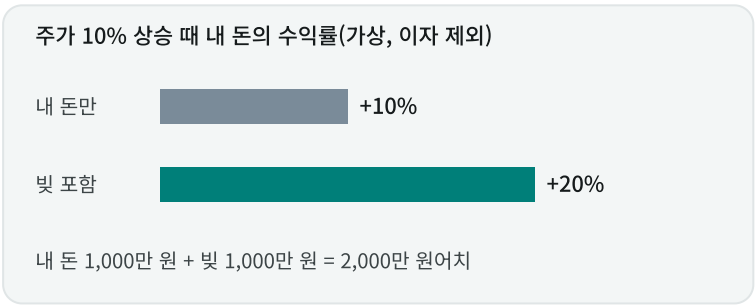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가상의 투자자 A. 막대 길이는 수익률에 비례함(1%당 12px).

02

주가가 내리면 손실은 어디까지 커질까?

같은 계산을 거꾸로 하면 손실도 두 배가 됩니다. 주가가 10% 내리면 평가금액은 1,800만 원이고, 빚을 갚으면 800만 원이 남습니다. 내 돈은 20% 줄었습니다.

주가가 30% 내리면 평가금액은 1,400만 원이고 내 몫은 400만 원입니다. 손실은 60%입니다. 주가가 절반이 되면 평가금액 1,000만 원이 전부 빚으로 나가 내 돈은 0원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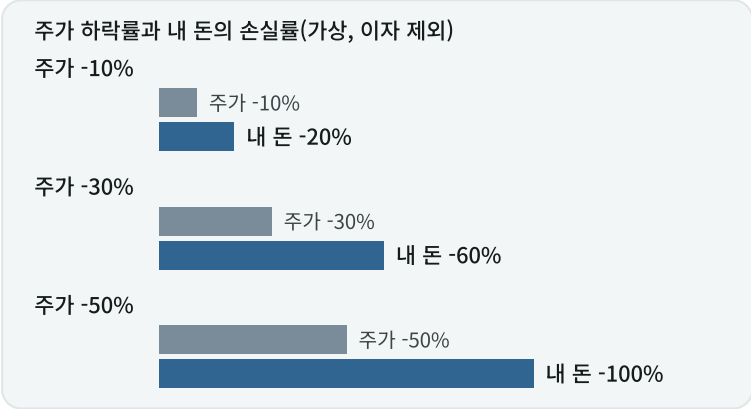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가상의 투자자 A. 막대 길이는 하락률에 비례함(1%당 2.4px). ▼ 주가가 반으로 줄면 내 돈은 모두 사라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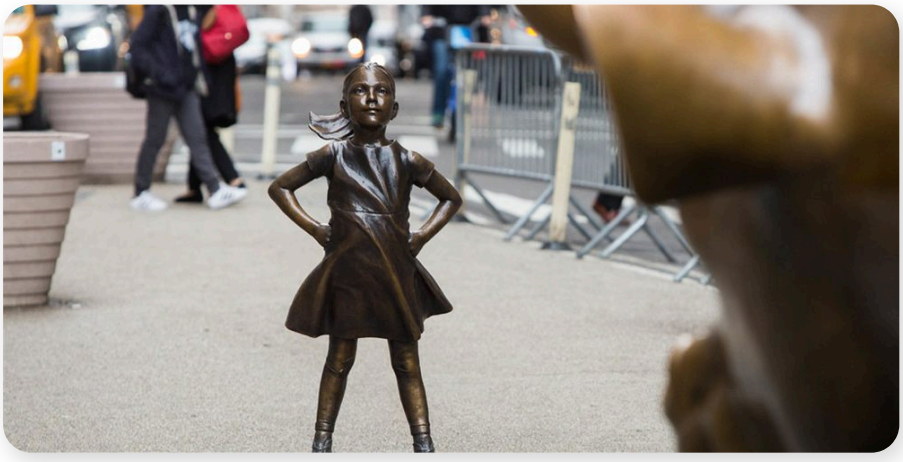


사진: 월가의 황소 동상과 마주 선 소녀상, Anthony Quintano, Flickr.

03

이자는 수익을 얼마나 깎을까?

빚에는 이자가 붙습니다. 가상으로 연 이율 8%를 가정하면 빚 1,000만 원의 1년 이자는 80만 원입니다.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같습니다.

주가가 10% 올라 200만 원을 벌어도 이자 8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입니다. 내 돈 대비 수익률은 12%로, 이자를 빼기 전의 20%보다 줄어듭니다. 주가가 제자리라면 내 돈은 80만 원이 줄어듭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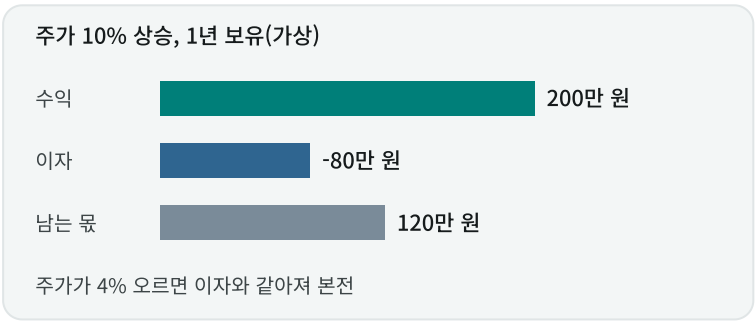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연 이율 8%는 가상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(1만 원당 1.2px). 실제 이율은 증권사와 기간에 따라 다름 [확인 필요].

이처럼 이자는 주가가 약 4%(80만 원 ÷ 2,000만 원) 오르기 전까지의 수익을 모두 가져갑니다.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, 2,000만 원의 4%는 80만 원입니다.

04

반대매매는 언제 일어날까?

주가가 내려 담보 가치가 줄면 증권사는 빚을 못 받을 위험을 봅니다. 그래서 담보비율(평가금액이 빚의 몇 배인지)이 정해 둔 선 아래로 내려가면, 투자자 뜻과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빚을 거둬들입니다.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.

A의 담보비율은 처음에 2,000만 원 ÷ 1,000만 원으로 200%입니다. 가상으로 기준선을 140%라고 하면 주가가 30% 내린 지점에서 1,400만 원 ÷ 1,000만 원으로 140%가 됩니다. 이때부터 강제 매도 대상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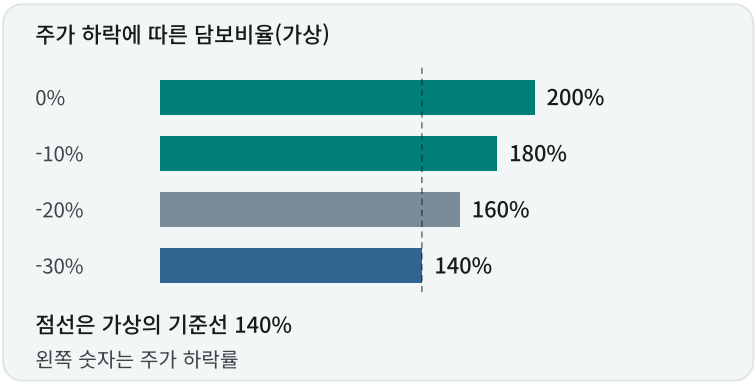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막대 길이는 담보비율에 비례함(1%당 1.2px). 실제 기준선과 강제 매도 시점은 증권사 약정에 따라 다름 [확인 필요].

05

주가가 다시 돌아와도 손실이 남는 이유는?

반대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. 내 돈만 투자한 사람은 떨어진 주식을 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. 빚을 낸 사람은 기다릴 권한이 줄어듭니다.

주가가 100에서 70으로 내렸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왔다고 하겠습니다. 내 돈 1,000만 원만 투자한 사람은 본전입니다. A는 70에서 강제 매도되어 내 몫 400만 원만 남았고, 주가가 돌아와도 되찾지 못합니다. 이자와 수수료는 뺐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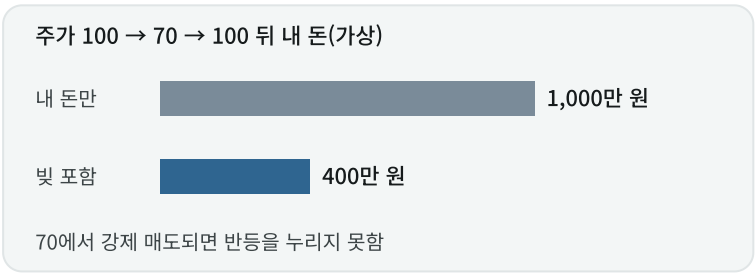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(1만 원당 0.24px). 가상 예시이며 이자·수수료·세금은 뺌.



사진: 1930년경 월가 북쪽 로어맨해튼 전경, cobravictor, Flickr.

06

빚투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신용융자를 쓰기 전에 숫자로 먼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오르면 수익이 두 배인데 내리면?"**
   → 손실도 같은 배수로 커집니다. 빚이 내 돈만큼이면 주가 50% 하락에 내 돈이 사라집니다.

2. **"이자는 얼마나 되는가?"**
   → 연 8% 가정 시 주가가 약 4% 오르기 전까지 수익이 이자로 나갑니다.

3. **"강제 매도 기준선은 몇 %인가?"**
   → 증권사 약정에서 담보비율 기준을 확인하고, 그 지점이 주가 몇 % 하락인지 계산합니다.

4. **"반등해도 되찾을 수 있는가?"**
   → 강제 매도가 되면 손실이 확정되어 이후 반등을 누리지 못합니다.

5. **"이 돈을 못 갚아도 생활이 유지되는가?"**
   → 생활비·전세금과 분리된 돈인지 따져 봅니다.

이처럼 빚투는 수익을 두 배로 키우는 장치이면서 손실과 이자, 강제 매도까지 함께 키우는 장치입니다. 두 배라는 숫자에 끌리기 전에 "얼마나 내려도 버틸 수 있는가"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

참고 자료

- 신용융자 이율, 담보비율, 반대매매 기준: 각 증권사 신용거래 약정서와 안내 [확인 필요: 증권사별 기준과 기준 시점]
- 신용거래 제도 일반: 금융투자협회 투자자 교육 자료 [확인 필요: 문서명과 기준 시점]
- 글에 쓴 투자자 A와 모든 숫자(이율 연 8%, 기준선 140% 포함)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자료가 아님. 계산을 쉽게 하려고 수수료·세금은 뺌

분류·태그 위험 관리 #레버리지 #매도 전략 #매매 전략 #손실 회복 #신용융자 #위험관리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auto-0900.html

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